

'98 EURONAVAL

방산물자 수출 위한 총력 결집의 현장 (2)



金錫淳

駐 프랑스 국방군수무관, 육군 중령

해상무기 관련 방산업체들에게 유로 나발이야말로 자기들이 만든 상품들을 잠재적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업체들로서는 수출물량 확보가 더할나위 없는 목표이겠지만, 이 해상무기 전시회는 업체와 잠재적 고객들을 한데 모이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중시하는 군비관련 국제교역은 사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따라서, 이 분야 업무는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이외에도, 국방, 행정 나아가 정치적 조치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무기 체계의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해상무기체계 생산 및 수출관련 기구



든 무기체계 관련 사업계획은 병기본부의 무기체계국(DSA)에서 수립, 관리하고 있으며, 해상무기체계의 경우 다른 무기체계와는 달리 병기본부의 주요 사업부서 중 하나인 함정건조국(DCN)이 생산 및 후속지원 업무까지를 담당한다.

지상무기는 GIAT사가, 항공/미사일 체계는 Aerospatiale, Dassault 항공, Matra BAe Dynamics사 등 대형 방산업체가 자국 및 타국정부 와의 계약을 통해 생산 및 수출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방산협력국(DCI)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해상무기 수출의 경우는 국영업체인 DCN이 주로 국제협력국(DRI)과 협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병기본부 무기체계국 (DSA)

해상무기사업부 (SPN)

해상무기사업부(SPN)는 병기본부 개편에 따라 1997년 1월 7일 창설되었으며, 무기체계국 산하 다른 사업부서들 즉, 지상무기, 항공무기 그리고 전술미사일사업부들처럼 아래와 같이 해당 무기분야와 관련된 “전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 해군 무기체계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해당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 수출업무 감독 및 지원
- 특정 기술관리 및 통제, 사전연구 지휘 및 기술 과정 운영
- 해군본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해당 무기 체계 운용정책 결정 및 시행

- 기타 함대보수작업 통제 및 전략적 투자소요 결정

SPN은 함정 및 기타 해상무기들의 정비도 담당하는데, 프랑스 해군의 주요기지인 Toulon과 Brest에 일종의 용역유지선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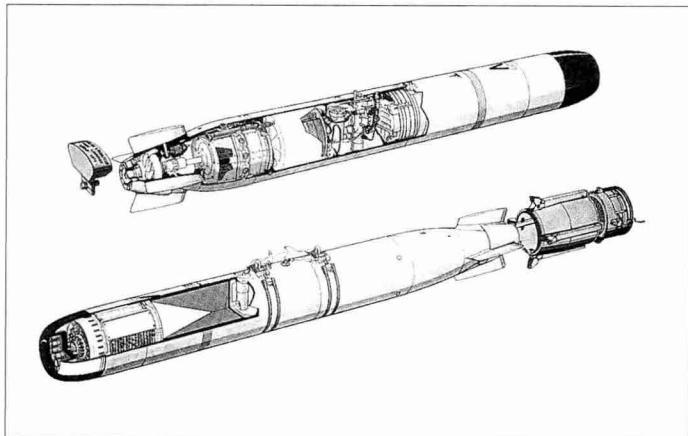
* 조 직

병기본부 개편이후 다른 모든 사업부서들과 마찬가지로 SPN도 특정 사업단위로 조직되고 이들은 다른 사업부서 즉, 군 전력/미래체계국(DSP)이나 계획/획득/품질국(DPM) 등의 계획부서나 함정건조국(DCN) 또는 전문시험센터(DCE) 등 사업부서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갖는다.

실질적인 편성은 특정 단위사업 책임자 및 그 조직원들로 구성된 몇 개의 과와 이미 체결된 수출사

프랑스 병기본부내의 함정건조국(DCN)에서 건조한 Cassard급 대공 프리깃함





프랑스(DCN과 Thomson-Sintra ASM)와 이탈리아(Whitehead)가 공동개발한 MU-90 경어뢰

업(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파키스탄 및 칠레 등)을 통제하는 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몇 개의 국제사업기구가 SPN과 밀접한 업무관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런던), 이탈리아(로마), 프랑스(뜰롱)간의 프리킥 협작사업 "Horizon"을 추진하는 기구인 JPO, 그리고 어뢰 MU-90과 Slat(대 어뢰 제거 시스템)를 담당하는 프랑스 이탈리아간 협작 사업부서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해상무기 사업부장은 프랑스 해군의 양대 기지인 뜰롱과 브레스트 해군기지 사령관의 참모장교중 1명씩을 업무면에서 직접 통제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핵 안전과 탄약제조 등 별도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지원과

사업지원과는 각 단위사업 책임자 및 그 소속원들에게 프로젝트 경영관리, 해당사업의 구상, 예산 관리, 구매업무 등을 지원하며, 특히 다른 계획부서나 사업부서들과 매트리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 체계기술과

체계기술과는 단위사업 책임자 및 그 소속원들을 기술면에서 지원하며, 관련 기술분야 정책을 결정하고 그의 적용을 통제한다. 또한 특정기술의 적용을

권장하고 장차 기술운용을 전망하여 그와 관련된 사전연구를 실시한다.

체계기술과의 주요업무는 5개 기술분야 즉, 핵 추진기관, 일반추진기관, 함포, 대함/대공 전투체계, 대잠 전투체계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DGA, CEA, EMM 등 3개부서 요원들이 참여하는 핵 추진기관 혼성기술부(STXN)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서는 특히 추진기관분야에서 SPN을 전문적으로 보좌한다.

SPN에서 산출된 사전연구 결과는 전문시험센터(DCE)와 함정전조국(DCN)에 의해 실행에 옮겨진다. 핵추진 분야의 사전연구는 STXN가 전담하는데 SPN의 통제없이 국방부로부터 예산을 할당받아 연구를 실시한다.

* 용역 유지선단

용역 유지선단은 해군선박의 정비, 기타 각종 군수품 및 시설물들의 보수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EMM과 긴밀히 협조하여 선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사용계획을 수립
- 선박 정비활동 실시 및 통제
- 예비물자 관리 및 소요충족 여부 감독
- 각종 운용체계 점검 및 보급품 수준 통제
- 각종 운용유지 및 통합군수지원에 관한 기술정책 참여

용역 유지선단은 선박유지, 군수품 관리 그리고 외국 해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3명의 책임자를 두며, 이외에도 예비물자지원과 종합군수지원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Toulon과 Brest 지부가 있는데 이들은 SPN 운용을 위해 아주 중요한 조직들이다. 각 지부는 SFS 및 SMP와 함께 편성되며 조직의 약 50%는 해군으로 이는 사용자들과의 대화를 용이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지부들과 Fort-de-France 및 Réunion에 있는 부서들은 긴밀한 업무관계를 갖고 있다.

* 주요 사업

SPN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준비 단계

- 신형 상륙용 함정(NTCD)
- 미래형 공격 잠수함 Barracuda
- 대공 프리깃함 Jean Bart와 Cassard의 현대화
(대공 시스템 "Tartar" 대체)
- 미래형 병참지원선(BSL).

구상 단계

- 대공 프리깃함 Horizon(佛, 英, 伊 합작투자사업, 1999년 초부터 사업진행)
- 신형 핵잠수함에 대한 M51 장착
- 수로측량선 및 해양연구 선박(BHO)
- 어뢰 제거기 현대화 사업(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실현 단계

- 신형 핵 잠수함(SNLE)
- 핵 추진 항공모함 Charles de Gaulle('98년중 시항 개시)
- 프리깃함 La Fayette(5번째 함정 건조중, 4번째 함정인 Aconit 올해중 취항예정,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된 이 스텔스 함정들은 수출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둠)
- 어뢰 MU-90(프랑스와 이탈리아 합작사업, '97년말 600기 계약 성사, 독일과도 계약체결)
- TCD n° 2 Foudre형 Siroco('98년 가을중 취항예정)

* 총괄사업

이 사업은 Coelacanthe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그리고 통신수단을 포괄하는 프랑스 핵억제력의 첨병을 제조하는

사업이다. Le Téméraire는 올해 7월 현역 취항했고 Le Vigilant는 현재 건조단계에 있다.

* SPN의 향후 10년

SPN은 병기본부 개편 등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한편 부여된 임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 함정건조국(DCN)과 정상적인 고객 - 공급자 관계를 정착시키고
- 다른 사업부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 사업 경영관리능력을 전문화하고,
- '99년중 ISO 9001 획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목표들 이외에도 SPN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PN은 해군사업을 계획하는 부서로서 부여된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특히 다음과 같은 목표 즉, 최저비용으로 최고성능의 선박을 공급하고 지속적인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병기본부(DGA) 국제협력국(DRI)

해상무기 관련 방산업체들에게 유로나발이야말로 자기들이 만든 상품들을 잠재적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업체들로서는 수출물량 확보가 더할나위 없는 목표이겠지만, 이 해상무기 전시회는 업체와 잠재적 고객들을 한데 모이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중시하는 군비관련 국제교역은 사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따라서, 이 분야 업무는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 이외에도 국방, 행정 나아가 정치적 조치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DGA의 국제협력국(DRI)은 바로 그 중심적 역

할을 수행하는 부서이다. 현재 프랑스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하나는 국제적 안정과 군비통제를 위한 국제적 협약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방위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방산물자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 대외 무기수출 및 관리

프랑스는 국방과 관련하여 아주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지녔던 강대국 중의 하나이다. 모든 국가들이 강력한 방위산업을 유지해 온 것은 아니지만, 국가 방위를 위해 군대를 유지할 필요성은 모두가 갖고 있다. 따라서 무기판매 소요는 사실 충분한 상태이나 무기수출은 철저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병기본부 국제협력국(DRI)은 여타의 국가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산업자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국제협력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방산업체들의 수출요구를 심의하는 것이다. 대부분 최종판정은 사안별로 총리직속의 군수품 수출검토 위원회(CIEEMG)에서 결정한다.

이외에도 국제협력국은 수출과 관련된 협상을 직접 실시하거나 수출승인된 사업의 경우 그 이해조건들을 검증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국은 가장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 제3국에 대한 책임

프랑스는 무기화산 제한을 위한 국제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유럽 연합 내에서 수출승인요구 검토시, 윤리적 차원도 고려하고 아울러 과다경쟁 제한을 도입하기 위한 수출원칙 채택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조처들도 검토중에 있다.

국제협력국은 이러한 수출의 통제업무 이외에도

민군겸용 기술분야의 교류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또한, MTCR(미사일 기술 통제 제도 : 탄도 미사일 및 관련기술 수출관리를 위한 국제 규정)과 이중기술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Wassenaar 협정을 준수한다.

* 수출 지원

국제협력국은 이같은 엄격한 틀안에서 업체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무기체계의 국제교역규모는 50%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대부분은 구소련과 그의 몇몇 동반자들 사이의 폐쇄된 거래가 상당량 감소한데 기인한다.

반면 미국의 수출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실제로 미국은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새로운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개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해상무기분야에서 미국은 특히 대공방어체계와 해군용 항공기분야에서 우위에 있다. 함포분야는 독일이 세계적인 수출국이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간 경쟁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프랑스군에 대한 내수판매보다 수출에서 거두어 들이는 이익은 실로 상당하다. 무기수출에 의한 흑자규모는 '97년에만 250억 프랑을 넘었고 사회적으로는 수출분야에서 6만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며, 연구부서 및 장비를 유지함으로써 기술 분야에도 기여하였고 재정적 차원에서는 산업체 유지라는 목표도 달성하고 있다. '97년에 전체 수출물량 중 방산물자 수출비율은 약 40%였는데, 이중 해상무기류의 수출이 25.6%를 차지하였다.

* 장비판매 촉진, 협상 지원, 계약 검토활동

고객들은 언제나 효율성이 확인된 장비를 원하며, 똑같은 장비가 프랑스 군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만일 다른나라들이 인정한 장비라면, 설령 첫번째 사용자가 외국 군대일지라도 최상의 판매 광고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좋은 예로 독일의 209형 잠수함과 프리깃함 Meko나 프랑

스의 Scorpène형 잠수함을 들 수 있다.

해군본부가 DRI의 권고를 받아들여 계획하고 있는 세계 각국 항구에 대한 기항은 그 작전상 필요 와는 별도로, 프랑스산 해상무기의 우수성 홍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모든 선원이 이를 통해 해상 무기 제조업체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Doha, Abu Dhabi, Mascate, Singapour Port-Kelang 등을 순회 한 Siroco함의 순항을 통해 프랑스의 방산장비들 즉, 함정을 비롯한 해상무기는 물론 전차, 미사일 그리고 헬기 등을 소개한 바 있다.

특정제품을 직접 수출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제품은 그와 유사한 품목들을 위한 표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칠레가 구입을 결정한 Scorpène 잠수함의 경우 일부 성능은 프랑스가 보유한 핵 잠수함과 동일하다. 또한 여러나라 해군들에게 제공한 Souveraineté형 프리깃함들은 신형 La Fayette함과 유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DRI는 여러 국제무기전시회에 참석함으로써 장비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출품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중소기업들을 돋기기도 한다.

고객이 구매할 의사가 있어서 여러 수출업체들 가운데 한 공급자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 DRI는 또 다른 형태로 개입하게 된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과 (재정 조건, 국가 보증, 보상 계약 등) 여러 판매 조건들을 보다 냉정하게 분석한 이후, 국제협력국은 원매국가, 공급업체, 타국 또는 타공급업체, 재무부의 대외경제 관계국(DREE : 국가대부 등과 같은 재정측면 지원), Coface(보증업무), 외무부(정치적 문제 해결) 등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차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DRI는 종종 합참과 함께, 제



DCN의 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
La Triomphant

품의 사후관리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이 주 계약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고객과 공급자 모두를 관리한다.

항해의 경우, Navfco라는 회사가 해군출신의 유자격자와 함께 이 업무를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병기본부는 어느 한 사업국을 지정해서 사업의 진행정도를 확인 감독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해군 또는 병기본부 예하 몇몇 학교기관에 외국연수생들을 입소시키는 것도 고객 지원정책중의 하나이다. 프랑스의 기술과 전술을 교육받은 교육생들은 프랑스와 주요 고객국가간에 지속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수출 및 유럽차원의 방산체계 구축

DRI 업무중에서 유럽 국가간의 협력으로 생산된 장비를 수출하는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유형의 수출은 최근 시작된 유럽차원의 방산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유럽 국가간의 협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유럽 이외 지역으로의 완제품 수출 여부와 무관하게, 유럽 내부에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간 수출관계 법령 조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국가별로 상이한 업무방식이나 규범 그리고 관행 등과 관련된 유럽 방산업체들의 활동이 미국 경쟁업체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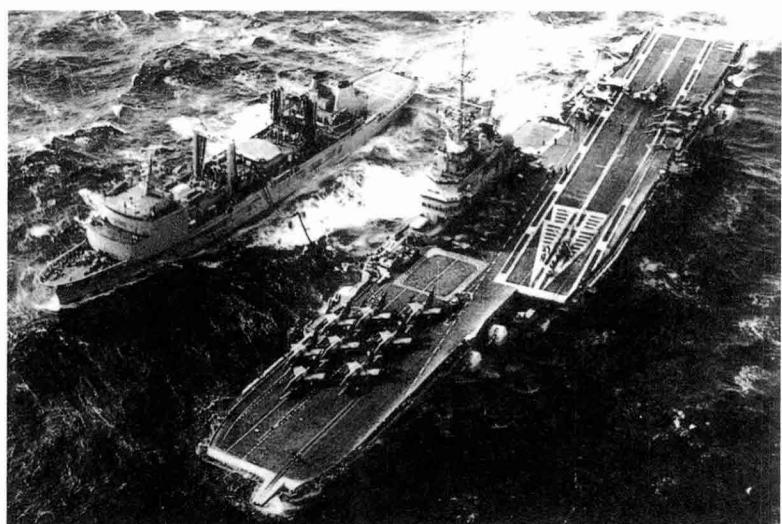
• 병기본부(DGA) 합정건조국(DCN)

DCN은 현재, 선박 건조 및 수리전문업체로, 프랑스 해군을 장비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른 방산분야 즉, 전자, 미사일, 항공기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상무기분야 역시 커다란 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DCN도 조직 및 경영 관리면에서 일대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도 대폭 증가하였다.

* 내수사업 목표와 도전

1998년 4월 9일 프랑스 국방장관은 해군을 위한 내수사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분야 사업의 목표는 현재 사업중인 선박들과의 기술적 격차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특히 Horizon 등 대부분의 대형함정들을 개조 또는 현대화하고 Barracuda(미래형 공격잠수함)와 NTCD(신형 상륙함정) 사업을 추진하며, 신형 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각국 구매정책의 변화, 생산능력의 지속적 잉여발생 및 수출분담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향후 국내업



프랑스의 원자력 추진동력
항공모함 Charles de Gaulle

체간 또는 타국기업과의 협력이나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3개국이 협력하여 추진중인 대공 프리깃함 Horizon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첫번째 유럽국가간 협력사업이다.

무척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 협력사업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결성된 컨소시엄이 전반적인 작업진행과 주요 하부시스템들을 담당하는 가운데 조직의 합리화, 개념 및 실행의 표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DCN과 주요 협력업체들인 Horizon 국제 합작투자회사(IJVC), GEC Marconi 그리고 Orrizonte사 등은 '99년 초에 개발 및 생산관련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 비용 및 기간 단축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DCN과 협력 사업체들의 노력은 이미 상당한 결실을 얻고 있다. 1990년 이후 해상무기 획득예산은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생산비용은 일정수준을 계속 유지하였다.

상류함정 Siroco의 경우 작업기간과 비용은 TCD Foudre에 비해 15%와 20%씩 감소했는데, 이는 통합 사업추진팀의 구성, 가치 분석, 비용, 사업지연 및 성과달성을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변화 등 새로운 여건하에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 국제경쟁 심화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이 축소될 경우 수출경쟁은 급속도로 심화된다. 수출은 내수위축을 단기간에 극복하는 한편 방산업체의 가동을 유지시켜 주는 보충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수출이야말로 전반적인 변혁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시장의 양상도 변하고 있다. 업체간의 통합과 협조는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며, 수출의 대가로 기술이전이나 오프셋이 일반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군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특히 미국에 의한 중고 선박판매도 늘고 있다.

1997년은 DCN에게는 성공의 해였다. Bazan-

DCN의 합작으로 만든 잠수함 Scorpène를 칠레에 판매했고, DCN-Konsgberg간 협력사업으로 노르웨이 초계정의 전투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잠수함 분야에서는 스웨덴의 Kockums사와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같은 협력은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 이익증대를 위한 혁신 및 적응

DCN은 다양한 변화들이 야기하는 각종 도전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DCN의 주된 활동은 앞으로도 함정 건조와 보수유지가 될 것이며, 생산성은 현재 진행중인 개혁작업을 통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DCN은 여러 형태의 경쟁상황하에서 언제라도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도의 잠재적 기술능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CN은 일반 함정, 잠수함 그리고 전투시스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수출시장의 25%~30% 점유를 목표로 삼고 있다.

DCN은 지금까지 항공모함 Charles de Gaulle과 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 Le Triomphant, 대공 프리깃함 등과 같은 최정예 함정들을 설계 및 제조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 및 산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였고 최근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La Fayette계열의 프리깃함이나 Scorpène 잠수함 등과 같은 혁신적인 중급함정들도 생산하고 있다.

혁신적인 능력은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열쇠로 이를 통해서 저렴한 획득 및 운영유지비용, 스텔스 능력까지를 포함한 생존능력, 함정을 소형화하면서도 뛰어난 작전운영능력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DCN이 이번 유로나발 해상무기 전시회를 통해 자신있게 전시했던 새로운 개념의 군함 CCX21은 프랑스 조선분야의 최첨단 기술능력이 모두 결집된 것이다. (防)